

政府施策에 反映을 主張

政策研究세미나 高位層의 認識提高도 促求

韓國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會長 閔寬植)가 제13회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마련한 第1回 科學技術政策研究세미나가 4월21일(月)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KIST 존슨講堂에서 열렸다.

오전 11時 閔寬植 科總會長的 開會辭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成佐慶 科學技術處長官의 祝辭와 李漢彬 副總理的 特別講演, 科學映畫 上映으로 午前 會議를 끝내고 오후 1時부터 본격적인 發表 및 討論이 進行되었다.

科總은 每年 紀念行事만으로 一貫했던 날을 보다 뜻있게 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計劃, 지난 3월 準備委員會를 構成하고 6個主題를 選定하여 主題別 分科委員會를 結成, 각 主題別로 워크샷을 통해 集約된 結論을 가지고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主題別 分科委 托의 내용을 보면 ① 80年代 科學技術 開發戰略(제1분과·4월10일 韓國科學技術研究所) ② 80年代 科學水準의 向上(제2분과·4월9일 韓國科學院) ③ 80年代 技術水準의 向上(제3분과·4월11일 韓國電子技術研究所) ④ 80年代 企業主導의 技術革新方向(제4분과·4월10일 全國經濟人聯合會) ⑤ 80年代 에너지技術開發方向(제5분과·4월10일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⑥ 科學技術에 대한 認識提高方向(제6분과·4월8일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등이다.

崔相峯(西江大교수) 박사가 座長을 맡아 進行하는 동안 科學技術界元老에서 부터 新進 科學徒와 產業界, 政策立案者에 이르기까지 참석자 모두는 이 나라 科學界의 앞날을 우려하는 열띤 토론을 벌여 만 세미나에서와는 아주 寬이 한 양상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政策立

案者나 最高爲政者들의 科學技術에 대한 보다 낫은 認識, 正常的인 科學教育의 重要性, 科學技術者의 優待 등 몇가지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으며 풍성한 말의 盛餐보다는 보다 具體的인 方法을 講究, 每年 계속되어온 科學技術振興이 말보다는 實效를 거둘수 있도록 하자는데 同意했다.

특히 金成斗(朝鮮日報 論說委員) 씨를 비롯한 非科學技術界人士들은 科學技術의 重要性만 강조하는데서 더 나아가 科學技術이 經濟 못지않게 國家에 重要하다는 點을 最高位層부터 認識, 이 자리에서 討論된 結論들이 政府施策化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先決問題라면서 스스로의 無力함을 타하지 말고 多角的이고 集中的인 方法을 動員할것을 促求했다.

盛況이룬 리셉션…… 300余名이 한자리에

오후 5時 세미나가 끝난후 존슨講堂옆의 잔디밭에 마련된 리셉션場에는 5개의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고 300여명의 科學技術界人士들이 참석, 盛況을 이루었다. 리셉션場 中央에 마련된 제13회 과학의 날 기념 케익을 閔寬植 科總會長, 李漢彬 副總理, 成佐慶 科學技術處長官 梁潤世 動力資源部長官, 朴忠勳 貿易協會會長 등이 차례로 장내에는 우리와 같은 박수와 웃음꽃이 때마침 불어오는 꽃바람에 흩날렸다. 이날 리셉션은 약 2시간동안 계속되었으며 이 나라 科學技術界의 앞날을 걱정하고 새롭고 효과적인 方向을 찾아 보려는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가는 모습 을 볼수 있었다.

※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發表된 內容을 特輯으로 엮어본 것이다.